

## [ 오피니언 ]

## 光日春秋

이해인



1. 나는 경부선 열차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아 복잡한데다가 너도 나도 끊임없이 주고 받는 말소리, 휴대전화 소리 때문에 목적이지 도착할 때까지 매우 힘들고 고로울 때가 많다. 예전에는 그래도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하거나 창 밖으로 보이는 산과 물을 즐기며 글을 쓰고 책을 읽고 하는 일들이 가능하였지만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

이야기 할 편 옆사람에게 방해 되지 않게 조용히 하고, 떠드는 어린이에겐 주의를 주고,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해 놓으며, 통화가 필요하면 객실에 나가서 하라는 안내방송을 되풀이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현실이 안타깝고 슬프다. 아무리 눈여겨봐도 일부러 객실로 나가 전화하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 여러분이 앉아 하도 시끄럽게 이야기 해 큰 방해가 될 적엔 승무원을 시켜 전달한 일도 몇 번 있지만 이 또한 번거로운 일이다.

긴 시간도 아닌데 그렇게 짜증 없이 휴대전화를 해야만 할까, 내용을 들어보니 그리 긴급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

참았다가 목적지에 내려서 하면 안 되는 것일까. 휴대전화가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때로는 전화의 존재 자체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다가 '위기상황'에서는 휴대전화 덕분에 생명을 구하는 일도 생기

나를 대로 변명을 하느라고 흐이 났었다. 또 한 번은 내게 두 권씩 오는 책을 하나씩 받아가는 동료에게 '공짜로 책을 얻어 참 좋겠다'고 하니 '공짜'라는 단어가 자존심 상한다고 하여 '그럼 더 이상으로 가져간다고 할까요?'라고 대답한 일이 있다. 이렇듯 우리가 악의 없이 내뱉는 보통 말도 때로는 상대방의 비위를 거슬리게 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마구 내뱉는 극단적 부정적인 말들은 인간관계를 결정적으로 그르치는 계기가 된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침묵의 삶에

## 고요하고 순한 말씨를

니 좋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만다. 공공장소에서는 습관적으로 목소리를 낮출 줄 아는 고요한 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흔어서는 커도/여성이 모이면 낮게 낮게/ 깊이 있는 말일수록/ 눈으로 하기/화가 났을 때는 아께서 쓰기/보이지 않으면서/꽃향기로 남고/ 만져지지 않으면서도/화살되어 가슴에 끊어

-이용순의 동시 '말'

2. 한번은 내가 어느 성직자에게 '그만하면 착하십니다'라고 표현한 일이 있다. 그는 매우 서운해 하며 앞의 '그만하면'이란 말은 왜 들어가야 하느냐고 따져서 내

들어가 밝고 맑은 말을 찾아내는 노력을 계획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어느 지인은 음식점에서 밀반찬을 추가로 청할 적에도 '이것 갖다 주세요'라고 명령조로 말하지 않고 '이것 좀 더 갖다 주실 수 있나요?' 하는게 인상적이었다. 그는 나아가 한참 아래인 사람들에게도 결코 무례하게 굴거나 반발을 하는 일이 없다. 매사에 딱 부러지는 단어, 되바라진 표현, 단정적인 말투를 쓰지 않고 늘 순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찾아 쓰는 그의 모습에서 인품의 향기가 절로 느껴졌다.

매일 말을 하고 살아야하는 일상의 길 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언어를 순하고

고요하고 부드럽게 갈고 닦는 노력을 해보자. 혼자 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면 더 힘이 있고 영향력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을 한 해는 각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가만 가만 이야기하는 연습, 누군가와 주고 받는 대화에서는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순한 단어를 더 많이 찾아서 연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누가 고운 말 하면 귀담아 듣고 수첩에 적어두기, 인 좋은 말을 들으면 어깨에 바꾸어 말 할 수 있을까 속고해 보기, 국어사전을 자주 들여다보며 우리말 공부하기, 책에서 발견한 데다이나 좋은 구절이 있으면 외워두었다가 나도 한 번 인용해 보기... 이런 노력은 우리가 언어학 교의 좋은 실습생이 되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역겨운 냄새가 아닌/향기로운 말로/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는 혼담과 혼란된 소문을/ 실어나르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깨끗한 말을 하게 하소서/늘 상대방의 입장에 헤아리는.../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점 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긍정적인 마음으로/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자작시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수녀·시인〉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공직사회 '철밥통' 깨기 바람 더 확산돼야

지난달 울산에서 시작된 공무원 '철밥통' 깨기 인사가 전남 일선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흥군은 3월부터 불성실하다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부적격' 공무원에 대해 단계별 관리에 나서 기로 했다. 부적격자로 분류된 공무원은 단순·반복 업무나 조사업무 등 현장 업무에 배치한 뒤 근무자세 개선노력을 평가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제제와 직원 면직 등 사실상 퇴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곡성군 등 일부 시·군도 부적격 공무원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의뢰하는 등 공무원 철밥통 깨기 인사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 같은 '인사혁명'은 국가적 과제인 행정혁신 사업을 앞당기는 촉발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공무원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정년까지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왔다. '철밥통'이란 말도 그래서 나왔다. 공직사회의 건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인사혁명'은 더 확산돼야 한다.

공직사회의 개혁 없이는 선진사회 진입은 불가능하다. 공무원들도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광주·전남의 다른 지자체도 고흥군의 '철밥통' 깨기 인사혁명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정년까지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왔다. '철밥통'이란 말도 그래서 나왔다. 공무원의 법적 신분보장은 청탁이나 정치적

## 北, 6자회담 합의사항 성실히 이행하라

베이징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문제에 대한 '2·13 합의문'을 도출해 매우 다행스럽다. 합의문은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고 있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사국들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북핵문제가 해결의 기준을 잡음에 따라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도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열린 이후 2개월 째 중단됐던 남북장관급회담을 재개키로 하고 15일 개성에서 실무대표 접촉을 갖는다. 이 산기족 상봉과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문제도 타결력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해 북한이 합의사항을 조속하고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13 합의문'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출발이 불과하다. 핵시설 이외에 개발한 핵무기 폐기 방안도 시급하다. 한반도에서 핵을 완전히 추방할 때 영구적 평화 정착과 번영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

## 無等鼓

IMF가 물고온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적 재앙 중 하나는 대량 실업과 그로 인한 중산층 붕괴였다. 최근에는 집값 폭등과 교육비 지출 증가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스스로를 빈곤층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나 유독 한국사회에서는 그 속도가 빠른다.

중산층의 개념은 모호하다. 경제협력개발 기구의 경우 국가소득 평균치의 50~150% 인 소득계층을 중산층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올해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기구 당 월 평균 소득이 340만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난해 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에서 중산층으로 살아가려면 11억원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서울에서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 강남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14억원대를 중산층 기준으로 꼽았다.

그러나 소득만으로 중산층을 규정할 수 없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는 '중산층이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의식과

이에 필요한 경제력을 구비한 계층'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삶에 대한 주관적 민족감이 중산층을 구분 짓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인 셈이다.

한국사회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가난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 위원은 14일 폐막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빈곤탈출구비율이 2003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저자의 논문을 발표했다.

빈곤층 탈출이 어렵다면 중산층으로의 진입은 더욱 힘들수밖에 없다. 빈곤층을 탈출하고 이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산층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최소한 독재 이상의 전세에 거주해 의식주 생활이 안정돼 있어야 한다. 수십년간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도 번듯한 집 장만이 어려운 현재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중산층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농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이하 광전연)의 분리문제는 미래 광주·전남의 생존처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대사안이다.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1991년 12월 20일 전남 발전연구원으로 개원한 당시 국토정책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화,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있었다. 더구나, 1992년 이슈화된 우루과이 라운드(UR)비탄은 농수산산업에 생존기반을 두고 있는 전남도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지역연구의 체계화된 정보인프라가 부족했던 당시상황

간된 '광주전남비전21' 1호(1993.4)~47호(2006.5) 내용을 보아도 광주전남 지역, 환경, 인재양성교육, SOC충족, 농수산업진흥, 해양문화관광산업진흥, 지역축제활성화, 광주문화수도조성, 기타 광주전남경관조성, 경제산업진흥에 관한 현안진단과 나름의 비전과 해법이 제시돼 있다. 뉴스레터 형식으로 연 6회 정도 발간되고 있는 '리전인포1호'(1994.6)~101호(2006.8)의 내용을 보아도 광주·전남 현안문제를 좀 더 빨리 여론화시키고 이에 따른 비전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정책연구과제로 매년 10원 내외로 발

기고

박용순



며칠 뒤 우리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설날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온 나라가 둘 둘다. 당장 시골로 이주할 수는 없더라도 내 고향을 주변에 알려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하자는 것이다. 우선 나부터 내가 다니는 회사, 동호회 등에 내 고향을 소개하자.

요즘 농촌사랑운동이 농협을 중심으로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이다.

그래서 모두 고향으로 가는 길이 교통체증으로 힘들지라도 그 멀고 먼 천리길을 마다않는다. 민족의 대이동이 아름다운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 고향의 설 풍경은 어릴

돌아가자. 다름아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자는 '화두'다. 당장 시골로 이주할 수는 없더라도 내 고향을 주변에 알려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하자는 것이다.

우선 나부터 내가 다니는 회사, 동호회 등에 내 고향을 소개하자.

요즘 농촌사랑운동이 농협을 중심으로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1만4천500쌍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다. 민족의 대이동이 아름다운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고향을 찾는 고향이 아니라 민족에게는 농촌을 만들자는 '화두'다. 당장 시골로 이주할 수는 없더라도 내 고향을 주변에 알려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하자는 것이다.

우선 나부터 내가 다니는 회사, 동호회 등에 내 고향을 소개하자.

올해 설날에는 시골 부모님과 가족들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향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쩔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랐을지언정, 농촌을 마음으로 고향으로 품고 산다.

그런 고향을 위해 올 설에는 무언가를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담고

올해부터는 나 혼자 찾는 고향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는 고향을 만들어보자.

올 설날에는 시골 부모님과 가족들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향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쩔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랐을지언정, 농촌을 마음으로 고향으로 품고 산다.

그런 고향을 위해 올 설에는 무언가를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담고

올해부터는 나 혼자 찾는 고향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는 고향을 만들어보자.

올 설날에는 시골 부모님과 가족들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향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쩔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랐을지언정, 농촌을 마음으로 고향으로 품고 산다.

그런 고향을 위해 올 설에는 무언가를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담고

올해부터는 나 혼자 찾는 고향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는 고향을 만들어보자.

올 설날에는 시골 부모님과 가족들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향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쩔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랐을지언정, 농촌을 마음으로 고향으로 품고 산다.

그런 고향을 위해 올 설에는 무언가를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담고

올해부터는 나 혼자 찾는 고향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는 고향을 만들어보자.

올 설날에는 시골 부모님과 가족들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향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쩔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랐을지언정, 농촌을 마음으로 고향으로 품고 산다.

그런 고향을 위해 올 설에는 무언가를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담고

올해부터는 나 혼자 찾는 고향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는 고향을 만들어보자.

올 설날에는 시골 부모님과 가족들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향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쩔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랐을지언정, 농촌을 마음으로 고향으로 품고 산다.

그런 고향을 위해 올 설에는 무언가를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담고